



때문에 환율의 변화는 양돈생산비에 즉각 반영되는 변화요인이 된다. 멕시코의 경험은 물가상승과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모두가 첫해에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두번째 해부터는 경제 여건이 많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환율은 3년차까지 지속적으로 고회율이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즉, 94년 말 미화 1달러가 3.85페소였던 것이 95년 말에는 7.72페소로 200%가 되고, 96년 말에는 7.92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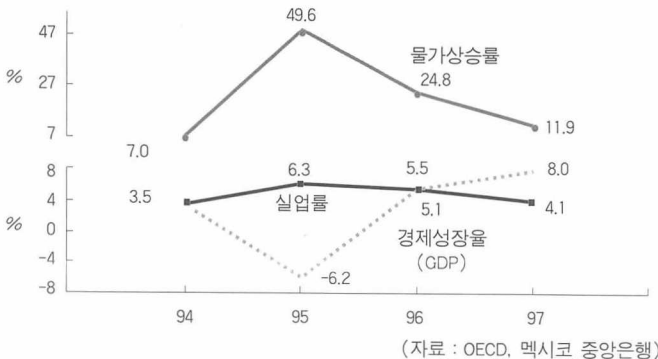
(206%), 97년 말에는 8.11페소(211%)까지 상승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의 돈가변화

지속적인 높은 환율은 결국 양돈 생산비를 높이게 되고 결국 돈가 상승을 유발하게 하고 있어서 12월 가격 기준으로 생돈가, 지육가 모두 94년 가격보다 95년은 2배, 96년은 3배까지 폭등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돈가는 환율 상승률만큼 오르지만 돈가의 상승률은 환율의 상승률과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면, 환율은 94년 11월까지

지속적인 높은 환율은 결국 양돈 생산비를 높이게 되고 돈가 상승을 유발한다. 멕시코의 돼지기격은 12월 가격 기준으로 생돈가, 지육가 모두 94년 가격보다 95년은 2배, 96년은 3배까지 폭등했다.

〈그림1〉 멕시코의 IMF체제하에서의 경제지표



적으로 돈가는 환율 상승률만큼 오르지만 돈가의 상승률은 환율의 상승률과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면, 환율은 94년 11월까지 미화 1달러당 3.4페소를 유지하다가, 12월에는 3.85페소로 13.2% 상승하고 95년 1월에는 5.75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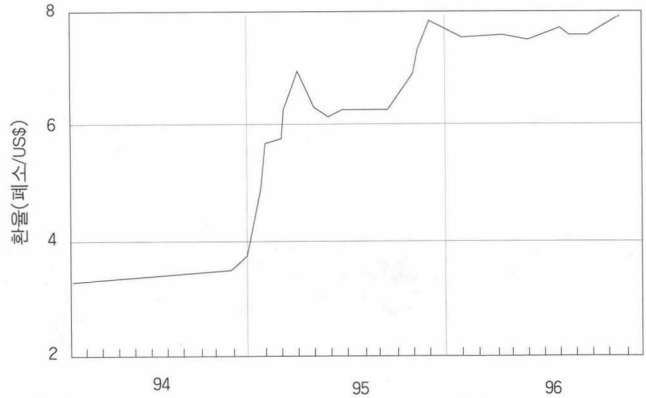
로 69.1%, 3월에는 일시적으로 6.94페소로 10.4%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3월을 고비로 다시 하락하여 95년 10월부터 다시 상승하여 96년 내내 7.6페소로 IMF이전보다 1달러당 121% 더 높은 페소를 지불하고 있다.

환율의 변화를 요약하면 2단계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데 IMF체제하로 들어서 자마자 미화 1달러당 즉시 약 80%의 페소를 더 지불하고(즉, 페소가치가 80% 하락한다) 이 환율은 약 11개월간 지속된다. 그 후 2단계로 다시 25%(당초 3.4페소의 126%) 페소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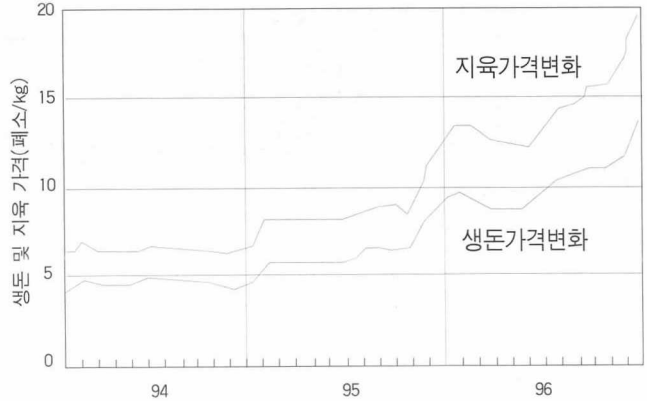
반면에 돈가는 IMF체제 시작 직후 약 20% 상승한 후 약 7개월 지속한 뒤 2단계로 다시 약 27% 상승하여, 다시 약 5개월간 지속한 뒤에 다시 약 50% 상승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돈가는 환율에 따라 상승하지만 약 7개월간의 시간차를 두고 상승하고 있다. 7개월이라는 숫자는 자돈이 출생하여 6개월간의 비육 기간동안 충분히 비

〈그림2〉 멕시코의 IMF체제하에서의 환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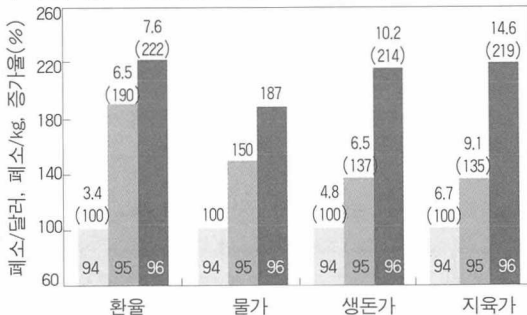
〈그림3〉 멕시코의 IMF체제하에서의 돈가변화



싸진 사료를 먹고 출하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평균 기준의 환율과 돈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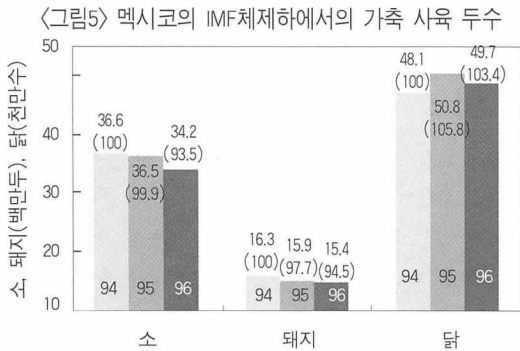
〈그림4〉 연도별 연평균 환율, 물가, 생돈가, 지육가 변화



94년 연평균을 기준으로 95년도에는 환율이 89%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50% 상승하는데 비하여 생돈가는 37%, 지육가는 35% 상승한다. 그러나 96년도에는 환율이 94년비 222% 상승하고 물가는 187%, 생돈가는 214%, 지육가는 219% 상승하고 있어서 결국 IMF체제 시작 후 2년이 지나면 환율상승만큼 돈가도 오르게 된다.

IMF 체제하에서의 가축사육두수 변화

IMF체제하에서는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일시적으로 육류 수요의 감소로 육류 등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져 가축사육 의욕을 크게 낮춘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가축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보다 적다(그림5). 소의 경우 IMF체제 1년차에 0.1%, 2년차에 6.5% 감소하고, 돼지는 1년차에 2.3%, 2년차에 5.5% 감소하였다. 반면에 닭의 사육두수는 오히려 1년차에 5.8%, 2년차에는 3.4%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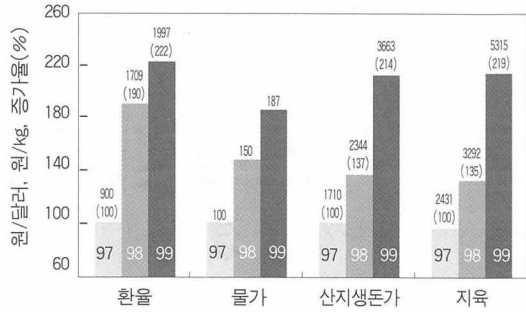


한국 양돈산업에 적용한 멕시코 경제지표

만일 한국 양돈산업에 멕시코 경제지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 우리의 환율 움직임은 멕시코의 IMF체제 초기와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연평균 기준으로 97년~99년까지 멕시코 경제지표를 한국 양돈산업에 적용하여 환율, 물가, 생돈가, 지육가 추세를 추정하여 보았다.

환율 : 98년은 미화 1달러당 1,709원이 되고 99년은 1,997원이 된다.

〈그림6〉 멕시코의 IMF체제하의 경제지표 적용시 한국 양돈 돈가 전망



산지 생돈가 : 97년의 산지 생돈 평균가는 kg당 1,710원이었다. 97년 가격을 100으로 기준할 때, 멕시코 지표에 따르면 98년은 kg당 2,344원, 99년은 3,663원이 되는 것이다. 100kg 비육돈 1두에 99년에는 36만 5,900원이 되는 것이다.

지육 가격 : 97년의 지육 평균가는 kg당 2,431원이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98년은 kg당 3,292원, 99년은 5,315원이 된다.

결론

멕시코와 한국의 사정은 경제규모, 인구, 식생활 문화, 경제구조 등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IMF체제하에서 경제지표가 동일하게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환율은 계속 상승하며 99년에 가서 97년의 2.2배 수준에서 안정을 이루고 물가는 99년도에 97년보다 약 1.9배 상승한다. 생돈가는 98년에는 97년보다 1.37배, 99년도에 2.14배 상승하고, 지육 가격은 98년에는 97년보다 1.35배, 99년도에는 2.19배 상승하여 98년에는 비육돈 100kg 1두에 23만~24만원, 99년에는 35만~36만원 선을 보이게 된다.〈자료출처 : 정 P&C 연구소 2월 돈가 보고서〉 **養豚**